천년을 세우다
묘연계좌 : 농협 301-0248-0882-41
예 금 주 : 아름다운 동행
대한불교조계종 미래본부

현대불교 30
창간 30주년
1994~2024

세계 최고의 불교대학!
동국대학교 인재불사에 함께 해주세요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0-649193 (예금주: 동국대학교)
후원문의 : 02-2260-3300(동국대학교 대외협력처)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70호 hyunbulnews.com (불기 2567년 음력 12월 28일) 2024년 2월 7일 수요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진우 스님과 윤석열 대통령이 1월 30일 봉행된 새해맞이 불교대축전에서 부처님 전에 연등 공양을 올리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불교계-尹대통령, 새해 '국민화합' 기원

종단협, 1월 30일 새해맞이 불교대축전

불교계 30개 종단 수장 비롯해 단체장·정관계 인사 대거 참석
진우스님-尹대통령 함께 헌등
尹 "불교유산 효율적으로 보호"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한국불교 주요종단과 윤석열 대통령이 갑진년 새해를 맞아 국가와 국민의 평안을 기원하는 대형 법석을 마련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교계와 법회를 함께하며 소통에 나섰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진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는 1월 30일 오후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그랜드볼룸에서 '새해맞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불교 대축전'을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종단협 소속 30개 종단 수장을 비롯해 전국교구본사주지,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윤석열 대통령과 이관섭 대통령실불자회장, 유인촌 문체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 정각회 소속 의원, 이기흥 불교리더스포럼 상임대표와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등 주요 단체장을 포함 1000여 명이 운집했다.

1부 기원법회 첫머리를 장식한 육법공양에서 종단협 회장 진우 스님과 윤 대통령은 대형 괘불에 등(燈) 공양을 올리며 국민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했다. 이 밖에 각 종단 수장과 주요 단체장들도 공양물을 올려 뜻을 함께 했다.

진우 스님은 봉행사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불교 사부대중과 한 해를 시작한 윤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한 뒤 대한민국을 이끄는 공직자들을 축원했다. 스님은 이어 "갑진년에도 한국불교의 첫 번째 화두는 마음의 평화다. 종교계, 특히 한국불교는 천년을 잇는 밝은 지혜로 국민의 평안을 위해 함께하겠다"며 조계종 차원에서 추진 중인 선명상 프로그램 보급 계획을 밝혔다.

'선명상 프로그램'과 '선명상 전문 템플스테이'를 언급한 진우 스님은 "한국불교와 전통사찰은 문화와 자연, 정신문화가 결합된 세계적으로도 가장 독특한 복합유산의 보고"라며 "국민들의 정신적 휴식처로, 세계인들의 관광명소로 함께할 수 있도록 가꿔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전통사찰의 각종 규제 해소에 힘을 보탠 윤 대통령과 보스턴박물관 사리 반환에 물꼬를 튼 김건희 여사에게 재차 감사를 표했다.

진우 스님의 적극적인 환대와 감사 인사에 윤 대통령도 부처님 가르침이 민족의 길을 이끈 등불이었다고 상찬하며 불교계 사부대중을 향해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잼버리대회 당시 사찰 개방을 언급하면서 "나라 안팎이 여전히 어렵지만 항상 불교와 동행하며 따뜻하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모든 힘을 쏟겠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오는 5월 개편되는 국가유산청 안에 종교유산협력관을 신설해 불교유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호해 나가겠다"며 "불교계 40년 숙원이었던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법이 통과돼 불교문화유산을 더욱 제대로 계승할 수 있게 됐다. 제가 관심 갖고 직접 잘 챙기겠다"고 밝혀 참석대중의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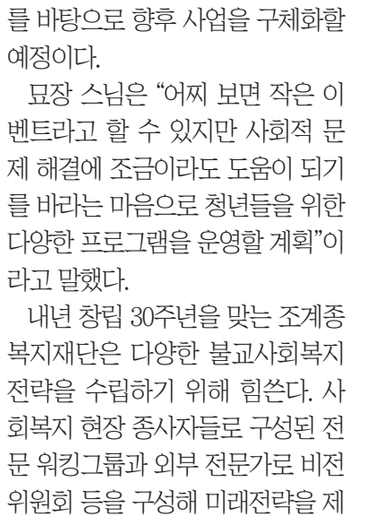
종단협과 함께 행사를 주관한 이기흥 불교리더스포럼 상임대표는 문화재관람료 감면과 각종 국가법령 정비가 이뤄진 지난해의 의미를 짚으면서 "불교리더스포럼도 더 많은 영역에서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종교의 사회정책적 기능 확장에 마음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법회에선 종단협 부회장이자 조계종 중앙종회의장인 주경 스님이 개회사를,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축원을, 종단협 수석부회장인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이 신년인사를 맡았다. 이후 사부대중은 종단협 차석부회장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가 대표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국민 모두가 용기와 희망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지혜와 복락이 가득한 정토의 길이 열리길 서원했다.

이어 진우 스님과 윤 대통령, 주현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중앙회장은 무대 아래 마련된 단상에서 발원지를 작성했다. 윤 대통령은 발원지에 '부처님의 자비로 행복한 대한민국'이라고 썼다.

교구 산하 복지법인 재정비 지역 불교복지 활성화 추진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신년 기자간담회 개최



10개 교구 복지법인 설립 추진 현황 재정비로 운영컨설팅 나서
만남 템플스테이 · 아침공양 지원 청년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눈길'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묘장 스님·사진)이 교구별 복지재단 운영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불교사회복지 역량 강화에 나선다. 재단 중심에서 교구본사 중심으로 체제를 개편, 지역사회 불교복지 활성화를 도모하고 운영시스템을 체계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1월 29일 서울 전법회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2024년 신년계획을 밝혔다. 재단은 올해 복지재단 미설립 교구본사를 대상으로 법인 설립을 추진, 교구를 중심으로 하는 복지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조계종복지재단에 따르면 현재 재단이 위탁하고 있는 복지시설은 전국 185개소다. 이중 100여 개의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재단에서 직접하면서 중앙에 부담이 가중돼 왔다.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한 복지 토대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복지재단은 교구본사의 법인 설립을 추진했고 최근 백양사와 봉선사가 법인을 설립하면서 교구본사 25개 중 현재 15개 교구본사가 복지재단을 운영하게 됐다. 조계종복지재단은 올해 미설립 교구본사의 복지재단 설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표이사 묘장 스님은 "미설립된 교구본사 복지재단 설립 추진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불교 사회복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면서 "이와 함께 현재 설립된 교구본사 사회복지법인인 산하시설 현황조사를 통해 운영현황을 재정비하고 안정화가 필요한 교구본사 사회복지법인에 운영컨설팅도 지원코자 한다"고 설명했다.

청년 불심을 잡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지난해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던 미혼 남녀를 위한 1박 2일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를 확대 운영한다.

대학생 공양지원 프로그램 '청년 밥심-청춘 꽃피우다'는 청년 대학생들이 사찰에서 따뜻한 한 끼 공양을 나누며 몸과 마음을 쉬고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상반기 중 서울 소재 대학교 인근 사찰 5개 내외를 섭외해 매주 한 차례 대학생 100여 명에게 식사를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묘장 스님은 "어찌 보면 작은 이벤트라고 할 수 있지만 사회적 문제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년 창립 30주년을 맞는 조계종복지재단은 다양한 불교사회복지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힘쓴다.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들로 구성된 전문 워킹그룹과 외부 전문가로 비전위원회 등을 구성해 미래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30주년 기념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후원모금과 재단 정책 사업도 다양화한다.

묘장 스님은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올 한 해 불교사회복지 활성화와 자비나눔 확산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다듬고 보완해 대중 속으로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불이와 자비를 실천하는 불제자로서 모두가 행복한 불국정토를 이루기 위해 더욱 정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불기2568(2024) 운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 연수

귀의 삼보하옵고, 한국 비구니 전통의 대가람 운문사,
수행과 포교의 출가정신을 되돌아 보고, 동문들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연수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전국에서 정진하시는 동문들께서는 부디 참석하셔서 지혜와 격려의 말씀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4년 3월 28일(목) 오후2시 ~ 3월 29일(금)
장소 마곡사 한국문화연수원

주최 운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
주관 운문사 승가대학 27회
후원 대한불교조계종 운문사
문의 각 기수 반장스님에게 문의바랍니다.

운문사승가대학 총동문회장 석우 합장

